#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법공양 페이지

# 自性佛은 무한 동력의 발전소 같아
# 용도따라 얼마든지 끌어 쓸수 있어

항상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저 마당이건 어디건 그냥 그대로 앉아서 들으시고 또 내가 말로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을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참 기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더불어 같이 요만한 풀 한 포기 버리지 않으시고 같이 하십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 자비는 너무나 커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릇대로 받아들이는 까닭에 더하고 덜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더하고 덜함이 없이 내려주시되 여러분의 그릇이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런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공부하러 다니지만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뜻을 알아야 하며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주인공이란 자체는 그냥 이름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나 자동차의 바퀴가 돌아갈 때 어떻게 중심이 잡혀있습니까? 중심으로 인해서 바퀴는 돌아갈지언정 중심은 부동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고등동물의 상징을 받았으니 그대로 부처님 될 수 있는 게 99%란 얘깁니다. 그 얇은 막을 틔지 못해서 그렇지 가능성은 전부 있는 거죠. 주인공이라는 그 불성 자체는 부동한 자세로 본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불의 근본은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배출해 준다는 얘기죠. 힘을 배출해 주니까 바퀴가 이탈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놓는다면 이것이 큰 강을 이루듯이 예를 들어서 강이 어떻게 해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됐겠습니까. 사방에서 다 모여드는 그 물이 한데 모이니까 바다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마음도 전후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거기에 놓으면 큰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은 진짜로 내가 갖고 싶어서 모은 게 아니라 다시 버리는 겁니다. 다 모아서 버려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한테 그것을 걸러서 청수로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적든지 크든지 다 내려 주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한 바다에 물이 수증기로 올라와서 그것이 정화가 돼서 다시 내려올 때는 일체만물의 생명을 다 살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풀이라고 안줍디까. 비가 내리면 요만한 풀이라고 해서 그 비를 안먹습니까. 물을? 그러니 비가 올 때 보세요. 적은 나무는 적은 대로 먹을 것이고 큰 나무는 큰 대로 먹을 것입니다. 아주 요만한 땅 끝에 붙은 풀은 땅 끝에 붙은대로 먹겠지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겠죠.

###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응해줘야 바로 보살행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24시간을 좌선을 하고 앉는다 해도 앉은 게 아닙니다. 좌선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앉았을 때는 좌선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일어날 때는 좌선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좌선이 됩니까. 이건 끊임없이 돌아가는 진리인데 말입니다. 이 지구도 끊임없이 돌아가고 사람의 삶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쉬었다 갔다 하는 것이 도루묵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참선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네 생활하고 하나가 돼서 입선, 와선, 좌선, 행선 이것이 다 한데 합쳐서 참선인 것이죠. 전자의 선지식들도 다 어떠한 것 하나를 빼놓고 참선이 아니라 모두가 참선이니라, 용광로에 놓듯 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본래 부동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공부해야 할텐데 '주인공이 있기는 뭐 빌어먹을 게 있어. 해도 안되는 거 뭐 주인공 아무리 불러도 안돼.' 이렇게 생각들 하신단 말이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근본 그 자체가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이 부동한 자기자신의 불성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못믿거나 어떻게 잘못 생각한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가 다 완벽합니다. 그럼 완벽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없는 억겁의 광년을 거치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또 진화돼서 형성되고 또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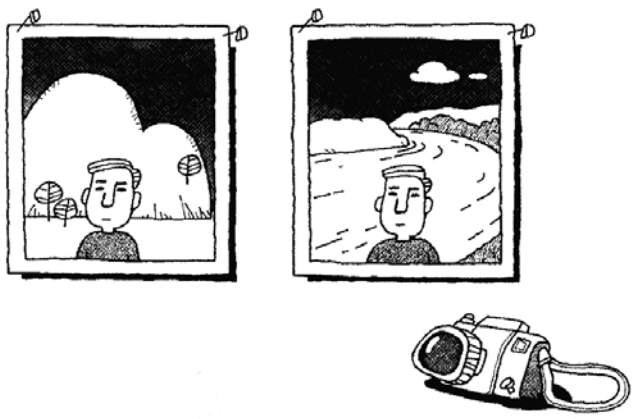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입선·좌선·와선·행선 한데 합쳐서 참선 모두가 참선이니 용광로에 놓듯 다 놔야

걸어서 이날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길을 인도하고 형성시켜온 자체를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히 어디에 비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불의 불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깨달으면 연등으로 화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으로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틀 잡힌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는 근본이니까 말이예요. 즉 말하자면 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발전소에는 항상 전력이 있으니 우리는 그 전력을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성불은 바로 전력이 있는 발전소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을 보면 물의 사연들을 다 알게 되고, 산을 보면 산의 사연을 다 알게 되는 원인이 뭐냐하면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되는 까닭입니다. 자불이 연관되니까 즉 말하자면 주해신으로 화한단 말입니다. 마음은 없는 게 마음입니다. 허공에 꽉찬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용도에 따라서 산에 일이 있어서 산을 보면은 주산신이 돼요. 주산신으로 화하는 거죠. 그건 왜냐, 그쪽도 주산신이라면 여기에서 주산신으로 합하면 주산신이지 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인연이 되고, 인연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들에 가면 들신이 되고 땅을 보면 지신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명이 짧을 때는 칠성, 칠불이 되고 죽어서 좋은데로 못간다 하면 또 거기 용도에 따라 지장보살이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이것이 필요할 땐 이것이 되고 저것이 필요할 땐 저것이 되는 거죠. 그것과 똑같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화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름이 나오고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자기 앞에 닥쳤으니 그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다 이런 겁니다. 바로 그 방편이다 이겁니다. 이렇듯 모든 전력이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의에서 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자의에서 구하니만큼 못하고 오히려 외도가 되는 거죠. 바깥에서 구하고 찾는 사람은 외도로 가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자불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진짜 자기 완성을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고 친근이 있죠. 친근이 있다는 것은 공심으로서 친근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리고 생명은 다 똑같죠. 적으나 크나, 개미나 코끼리나, 돌이나 나무나 어떤 것도 생명은 똑같으니까 공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것도 생명이 꽉찼으니 공생이지 공생이 뭐 달리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공심이고 공체고 공용인 것이지 우리가 만약 눈만 하나 이렇게 달렸다고 그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달렸다 해서 그 귀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같이 결부돼서 즉 서로 원력이 돼야만이 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관해라, 관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 맡기고 너만이 해줄 수 있어 하고 관해라 하는 겁니다. 모든 몸에 있는 의식들이 포함이 되는 이유는 뭔가. 수상행식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각자 여러분이 감수성이 빠르고 상상력이 빠르고 그렇게 되면 그냥 행(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으로 들어가면 공식으로 들어가죠. 수·상·행 이것이 식이 따로 없이 즉 식이 전부 원식으로 들어가요. 여러 말을 갖다 붙이면 여러분이 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데 합쳐서 원식이 됩니다. 경전에는 원식이라고 합니다만 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공식 이렇게 하면 이게 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한데 합쳐서 중용으로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96)

#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비춰볼때에...

이 세상을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해 놓고, 마치 꼭두각시 놀음을 구경하듯 구경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일을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켜 보라. 잘하든 못하든, 하든 안 하든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볼 때, 그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한군데로 나고드는 주처가 있는 듯이 느껴질 것이다. 한 치도 놓치지 말고 단단히 지켜 보라. 생각하기 이전의 그 주처가 대공의 주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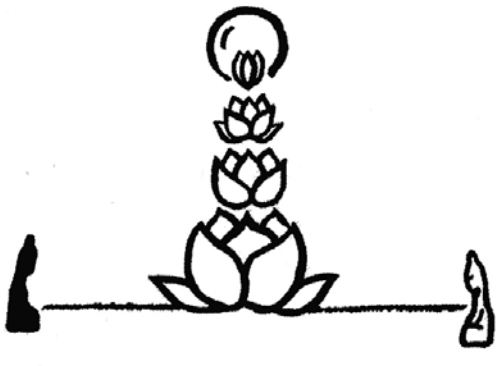
지켜 보라. 자기 발걸음을 지켜 보라. 말하는 건 누가하고, 듣는 건 누가 듣고, 보는 건 누가 보는지 지켜 보라. 자기 하나 있어 이날까지 모든 것을 해오고 있는 것을 지켜 보라. 생활을 떠나서 진리를 찾으면 끝내 찾지 못한다.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자기 모습 그 자체를 살펴보라. 거기에 울고 웃을 것이 진정으로 있는가. 울고 웃는 자신이 실체로서 있는가. 자세하고 자세히 관해 보라.

누가 했느냐? 온 것은 누구고 간 것은 누구냐? 누가 구덩이에 빠졌고 누가 나오려고 하느냐? 누가 울고 누가 웃느냐? 그렇게 하는 근본은 누구이고 그것을 지켜 보는 근본은 누구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오직 '누가 하느냐'를 탐구하고 들어갈 때 공한 자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주인공을 붙들고 늘어질 수가 있다.

'자기'라는 욕심을 세우지 않고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지켜 보라.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나는 지금 왜 미혹한가, 나는 어째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인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중생으로서의 자기를 영원한 자기, 무아인 주인공에 던져 버려야 한다.

자기를 형성시켰고 수억겁의 진화를 이끌었고 지금의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본래면목이 있는 줄은 아는데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있다면 대답하라.' 하는 것이 곧 관이다.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업이 돌아오고 선하게 쓰면 선업이 쌓인다. 그러나 선하다, 악하다를 따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그것을 지켜 보라. 지켜보고 나가다 보면 좋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 봤고 나쁘게 하는 것도 자기가 지켜봤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가 하는지도 알게 된다. 누가 하는지를 알 때에 자유인으로서의 극락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가 돈을 갖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날 때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대로 하라. 다만 그것을 누가 했는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나, 나의 것이라는 집착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를 보라.

닥치는 대로 놓고 지켜 보는 게 관이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해도 놓고 지켜 보라.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는 것이다. 사실 일체경계를 관한다 하지만 그 경계 또한 한마음 안의 일이니 경계가 따로 있지를 않지만 그러면서도 지켜 볼 경계가 있으니 놓고 관하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놓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팎 경계를 지켜 보는 자기를 보고자 하게 된다.

관한다 함은 '없는 중심'을 그냥 지켜 보는 것이지 무엇을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 주인공에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비는 것이지 관하는 게 아니다. 주인공을 믿고 맡겨 놓기만 하라. 그리고 오직 지켜 보기만 하라. 마음의 컴퓨터에 모든 것을 입력해 놓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지켜 보라. 자아 부처의 자리에 코드를 꽂아 놓고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 보라. 상대를 두고 구하는 데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

지켜 볼 때에 자꾸 망상이 든다 해도 망상조차 '주인공 자리다!' 하고 놓아라. 믿음이 약한 탓에 망상 끼어 드는 것이지만 놓고 관하라. 그것을 따로 구분해서 보면 안된다. 행하는 그대로를 '누가 하는가' 지켜 보라. 놓는다는 것은 용광로에 무쇠·잡쇠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 넣는 것이요, 관하는 것은 넣는 대로 용광로에서 재생되어 나옴을 지켜 보는 것이다.

설사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해도 주인공 자리에 놓고 지켜 보라. 관한다 함은 믿음으로 지켜 보는 것이요, 결코 둘로 보지 않고 지켜 봄이다.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을 굳게 믿고 들어가는 것이 참선이자 관이다.

협찬 : 주인공